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1. 28.(수) 17:00  
(지 면) 2026. 1. 29.(목) 조간

## 행정안전부 장관, 봄철 산불 ‘공중진화’ 대응 태세 현장점검

- 강원 원주 산림항공본부 방문해 헬기 등 공중진화체계 집중 점검
- 전국적인 산불 발생 대비, 군·지방정부·소방·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강조

□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(수)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,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.

○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\*(1.20.~5.15.)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\*\*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,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.

\* 봄철 산불조심기간: (당초) 2.1.~5.15. → (변경) 1.20.~5.15. (12일 조기 시행)

\*\* 중앙사고수습본부(산림청), 대책지원본부(행정안전부) 등

□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,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\*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\* 산림청 공중지휘통제,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

○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, 군·지방정부·소방·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.

□ 이어,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대형헬기(담수량 10,000L급, 산림청이 올해 1월 신규 도입) 등 주요 헬기 정비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, 즉각 출동이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.

○ 아울러, 헬기 물 투하 훈련을 참관하며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산림항공 본부의 산불진화 역량도 직접 확인했다.

- 윤호중 장관은 “최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,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불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”라며,
-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, 산림 인근 소각 행위 자제를 비롯한 산불 예방 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사회재난실<br>환경산림재난대응과 | 책임자 | 과 장 | 안길주 (044-205-617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원일 (044-205-6183) |

